

양양 귀애 파기 놀이 보판

놀이과정

첫째마당 : 통나무를 끌고 입장

좌상, 기수, 농악대를 앞세우고 입장하는데 두수자의 “자 올라가자” 하는 구령에 맞춰 일제히 산 오르막으로 통나무를 끌기 시작하는데 “어여차” 하는 선소리에 맞춰 일꾼들은 뒷소리를 받아 반복하면서 산등까지 올라가 잠깐 쉬다가 두수자가 “지레 편장 우야여호” 하고 주문을 송독하고 “자 내려가자” 소리치면 일제히 “와” 하고 합성을 지르며 내리막을 달려 귀애터에 도달하여 흥 돋우기 마당놀이를 한다.

둘째마당 : 통나무 톱질하기

한 마당놀이로 기운을 돋운 일꾼들은 귀애를 팔 통나무 양편에 앉아 표면만 톱질하게 된다. 이때 선소리꾼의 매김소리에 맞춰 뒷소리를 이어받으며 톱질을 계속하여 통나무 표면을 일궈내기 쉽게 하기위한 톱질이 끝난다.

셋째마당 : 귀애파기

귀애파기 일꾼들은 일제히 도끼와 이뱅이(속칭:큰 자구)로 통나무 표면을 일궈내고 귀애파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선소리꾼의 매김소리에 맞춰 일꾼들은 뒷소리를 받으며 귀애속을 전부 파게되며 귀애통속에 남아있는 도끼밥을 비로 쓰러내고 짚뭉치에 불을 붙여 귀애통속을 약간 태우면 귀애통을 완성하게 된다.

넷째마당 : 좌판놀이

귀애통이 완성되면 설참을 겸하여 좌판놀이를 하는데 피로를 풀기위하여

곱세춤, 병신춤, 화레이춤 등 춤재주를 부리며 일꾼들을 웃기다가 참술이 거나해지면 한사람 두사람 일어나 춤을 추며 흥을 돋구다가 모두 일어나 한데 어울려 한마당 흥겹게 논다.

다섯째마당 : 귀애통 놓기

귀애훈을 묶고 한편은 만들어서 물꼬(속칭: 물을 유입시키는 입구)에서부터 경사가 지게하여 유수가 잘 되도록 귀애와 귀애의 접속부분을 잘 맞추어 밧줄로 비너장과 귀애훈에 동여메고

귀애훈기가 완성되면 물막이를 터져놓고 좌상이 “물내려간다” “풍년이여” 하고 환성을 지르며 선소리하면 일꾼들도 따라서 뒷소리로 받으며 몇번 반복하다가 기쁨이 넘쳐 모두 함성을 지르며 흥겨운 마당놀이가 뜨겁게 어울린다. 이때 한편에서는 귀애훈을 받는 높은 지대의 논에는 코리파래질을 하고 약간 낮은 지대의 논에는 통파래질을 하다가 마당놀이에 같이 어울린다.

여섯째마당 : 치성제와 퇴장인사

흥겨운 마당놀이가 끝나면 치수를 기원하는 치성제를 지내고 퇴장인사를 한다.